

삼성전자, 사회복지사 위한 ‘비타민캠프’ 개최

삼성전자가 경기 평택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30명을 대상으로 최근 삼성물산 서비스아카데미(경기도 용인)에서 ‘비타민캠프’를 열었다. 비타민캠프는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삼성물산 서비스아카데미가 개발·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력에 노출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크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평택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자긍심과 활력을 되찾고, 결과적으로는 이웃이 사회복지사로부터 더 나은 보살핌을 받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3년째 비타민캠프를 열고 있다.

비타민캠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 공감(전문진단을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도출하고 동료와 공감) ▲ 비움(에버랜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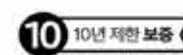
▲ 채움(감정 회복 탄력성 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 방법 습득) ▲ 강화(마음 건강 관리계획 수립)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비타민캠프 운영 비용은 전액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임직원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타민캠프 참가자의 20% 범위에서 삼성전자 우수 봉사직원이 함께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직접 초대할 수 있다. 평택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월 1회 공예 수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고현정 프로는 “힘든 이웃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요양원 복지사들이 이번 비타민캠프를 통해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보내고 에너지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⑦



만족, 그 이상의 스피드와 신뢰성

더욱 많은 공간과 더욱 빠른 스피드까지. 다양한 용량과 최대 100/90 MB/s에 달하는 빠른 읽기/쓰기 속도, 확장된 호환성으로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완벽하게 저장하고 모든 콘텐츠를 한번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능과 신뢰성까지 겸비한 EVO Plus로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저장해 보세요.



*일부 사용처에 대해 보증을 제한합니다(자랑용 문턱박스, CCTV와 전용 링). **SD Adaptor는 1년 제한 보증.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삼성 메모리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com/memorycard를 참조하십시오.

